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임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임양산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가 동남
- 함양은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역사 수수께끼 푸는 문화열쇠

20세기 발굴 정보문화재 10선

역사는 문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문화 유산 속에 깃든 지난 날의 궤적이야말로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일 수 있다. 문화 유산은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읽을 수 있게 하는 '타임머신'이기 때문이다.

국가지정 국보·보물·사지 대부분은 1900년부터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 손으로

이른 정보문화재 관련 발굴은 1959년 김은사지부터 1999년 삼삼사 목탑까지 반세기를 넘지 못한다. 이 기간동안 발굴·발견·재조명된 정보문화재 가운데 10가지를 추렸다.

도움을 주신분들:이동현(연세대 건축학과 객원교수), 정재훈(문화재보호재단 박물관장) 황수영(동국대 명예교수) 문영대(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씨 등(무순)



◇삼국시대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국보 83호·국립부여박물관 소장)



◇1966년 불국사 석가탑 속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국보 126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시대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 (국보 119호 국립박물관 소장)

해방후 처음 발굴된 절터

■김은사지 서삼층석탑 유물 발굴된 절터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김은사지(사적 128호)다. 우리나라 최초로 통일 이복한 신라의 장군이 고스란히 응축된 이 사지는, 1959년 국립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당시 붕괴위험을 안고있는 서탑의 해체·복원은 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 12월 중순, 서탑의 옥개석을 풀어내자 부드러운 흙 속에서 사리공이 나타났다. 신라의 통일 정권을 1천 3백여 년 동안 고이 간직해 왔던 청동제 사리장엄구(보물 366호)가 다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찾은 정보문화재이다.

신라 사찰 규모·양식 엿바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황룡사지(사적 6호) 발굴은 반세기 남짓한 정보문화재 발굴사에서 단연 으뜸이다. 70년대 초까지도 이 절터는 민가와 논밭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무렵 정부는 '경주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문화재연구소는 경주지구 고적 발굴을 맡았다. 이때부터 1천 2백여 년 동안 잠자던 황룡사지는 본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1964년 12월 국립대 삼초석에 간직되어 있던 사리장엄구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흐른 뒤였다. 8년 동안 10만명이 동원되었던 황룡사지는, 신라 최대 왕실사찰의 규모와 양식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백제 불교의 찬란함 '증거'

■미륵사지 익산의 미륵산 좌우로 흘러내린 나지막한 능선 안에 자리잡은 절터가 미륵사지(사적 150호)다. 용화세계를 염원하던 백제 최대의 사찰이다. 그러나 발굴이 시작됐을 때 이 절터는, 1천 3백여 년의 풍상을 견디지 못해 거의 쓰러져간 미륵사지석탑(국보 111호)과 건물지만이 남아있었다.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문화재연구소 발굴단의 손길은 차라리 마술이었다. 미륵사의 담장 터를 찾아 사격을 추론하고, 신라의 황룡사와 쌍벽을 이루는 대가람임을 밝혀낸 것이다. 또한 석탑의 조성 연대와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능사정릉' 쓰인 절그릇 조각

■정릉사지 남원에서 황룡사지와 미륵사지와 같은 신라와 백제의 절터가 발굴되는 동안 북한에서도 그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974년부터 고구려 동명왕의 능사인 정릉사지 발굴이 시작된 것이다. 정릉사는 고구려의 정사와 그 역동적 미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찰로 총면적이 9천여평으로, 황룡사지와 여가를 견줄만하다. 그런데 이 대역사(役事)의 단초는 인근 무릉에서 출토된 '능사 정릉'이라고 쓰여진 절그릇 조각이었다. 하잘것없는 조각이 정릉사와 동명왕릉을 입증해준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 명문불상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 1933년 12월 경남 의령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인부의 삼 글에 석상이 걸렸다. 1천 5백 여년 동안 잠자던 고구려의 부처님,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119호)이 다시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당시 고고학계는 '우리나라 최초의 명문 불상'이라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미술사학계는 역동적인 고구려 초기 불상의 모습에 한껏 매료되었다. 이 불상은 제작 연대가 확실한 불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 출토된 경남 의령 지역은 당시 신라의 영토로, 고구려 불교의 영향력이 광범위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세계최고 목판인쇄물 발굴

■불국사석가탑내발견유물 1960년대 전국의 도굴꾼 총 수는 약 1천여 명으로 추산됐다. 그들은 고분 외에도 경주 불국사 석가탑(국보 제21호)의 한 쪽을 지렛대로 들어올리고, 그 속에 큰 사리공을 훔칠 시도를 할만큼 극성이었다. 그 때가 1966년 9월, 전국 민은 분노했다. 문화재관리국은 탑의 피해상을 바로잡고 사리장치 유물의 안전 여부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다라니경(국보 126호)과 향건 당시 제작된 사리장치 유물(모두 합쳐 국보 126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불교예술의 대표작

■금동미륵반가사유상 1912년 이왕가박물관이 일본인에게 거금 2,600원을 주고 사들인 것이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이다.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게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불교예술이다. 이왕가박물관이 이 불상을 사들일 때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호분을 바른 표면에 상호는 먹으로 입술은 빨갛게 칠해져 마치 더럽혀진 회벽과 같았다 한다. 일본인의 악랄에 의해 사물로 반출됐음을 시새해 준다. 사실 오늘날 날까지도 이 불상의 반출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사리 봉안시대 기록 명화

■백제청왕명석조사리감 부여 능선리사지는 연대가 확인된 백제의 절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1995년 10월 국립대 삼초석에서 출토된 백제청왕명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 때문이다. 이 사리감은 사리를 봉안한 시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의 북조시대의 유행을 따르고 있는 이 사리감은 삼국시대 사리감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일제 약탈후 1919년 반환

■경천사지 10층석탑 현재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이 보수·복원에 열중하고 있는 있는 경천사지 10층석탑(국보 제86호)은 1907년 일본 공내대신 다나카가 경기도 공역군 경천사지에서 해체, 일본으로 불법반출되었다. 고려시대 걸작으로 꼽히는 이 탑은 국제적인 여론과 조선총독부의 반환 요구에 따라 1919년 서울로 되돌아왔지만, 파손이 심한 상태였다. 때문에 경북 공 근정전 회랑에 쌓아놓은 채 방치되다가 1960년에 역지로 복원이 이루어져 국보로 지정됐다. 다시 보수하여 새로 자리잡을 곳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예정돼 있다.

백제 석조미술 절정

■서산 미애삼존불 충남서산 가야산 계곡 동면에 미애삼존불(국보 제84호)이 있다. 한국 조각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히는 불상은 백제석조 기술을 집약해 해 주는 성보다. 주존불의 미소와 좌협시인 사유상은 평면 양각을 능숙하게 다루었던 백제인 솜씨를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어 백제 석조 미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백제시대 '서산 미애삼존불' (국보 84호·충남 서산 소재)



◇백제시대 '백제청왕명석조사리감' (국보 288호·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전북 익산에 있는 백제시대 '미륵사지 석탑' (국보 111호)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신라시대 '황룡사지' (사적 6호) 전경.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 (국보 86호·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중)